

佛法·인간생활이 조화이뤄 하나돼야

성운대사는?



1922년 중국 감숙성 강도(江都)에서 태어난 스님은 1934년 12세때 의흥(宜興) 대각사에서 지계(志階) 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법명은 오철(悟徹), 법호는 금각(金覺), 필명은 마가(摩迦)이다.

1941년 서하산(棲霞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서하산학원, 초산(焦山) 불산불학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백담초등학교 교장, <노도월간(怒濤月刊)> 주간, 남경 화장사 주지를 역임했다. 1949년 대만으로 건너와 중리 원광사에서 머물렀다. 1950년에는 <인생월간>을 편집하고,

1952년 의관 뇌음사에 염불회, 흥법단 등을 조직하고, 1957년 대북에 불교문화 복무처를 세워 불교서적 및 불교음반을 출판하면서 포교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1967년 고승현 대수원에 불광산을 세우고 그 전후로 수산불교학원, 중국불교연구소, 불교문화연구원,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육유원(고아원), 불광출판사, 불교진료소 및 보문중고등학교 등의 포교 및 복지기구, 교육기관을 설립해 교육, 문화, 자선구제사업 등의 토대를 만들었다.

1991년 타이베이 국부기념관에서 불광협회를 창립, 승속이 합심해 삼천대천 세계에 불광(佛光)이 두루 비치고, 오대주(五大洲)에 법수(法水)가 흐르게 하자는 '인간불교 및 인간정토' 건설을 발원했다. 대만내외의 40여개 말사와 전세계 30개국 40여 지원에서 4개의 종합대학(남화대학, 불광대학, 미국 서태대학, 호주 남천대학)과 13개의 불교대학, 불교위성TV와 불교일간지(인간각보), 불광의료원, 22개의 도서관, 8개의 미술관 등 단일 사찰로는 세계 최대의 포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성운스님은 '사람들에게 신심과, 기쁨(歡喜), 편리함(方便), 봉사(服務)'라는 원칙 아래 인간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설법과 자선사업을 쉬지 않고 있다.

41년 비구계, 49년 대만으로 건너와 불광산사 창건

대학·불교TV·신문 등 단일사찰 최대 포교조직

경향이 있지만, 대만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합니다. 불광산사의 전사관, 박물관 등에서는 여성 불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으며, 100여명의 유망 상좌들은 종립학교의 교장, 교직원 등으로 활동중입니다. 불광산은 복장, 의식, 신도조직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는데, 한국불교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스님께서는 교육, 문화, 자선구제사업 등으로 정토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같은 '하화중생'을 위해서는 동시에 '상구보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100여년의 전통을 지닌 대만불교는 생활불교가 정착이 되었지만, 16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은 수행 위주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는 1950년 한국전쟁을 겪고난 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 같

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도 좌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염불도 하고 경기도 하고, 포교도 하고, 중생구제에도 나서야 합니다. 수행과 포교를 겸해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대만 불교는 시민들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유아의 백일,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입학, 결혼, 장례 등 모든 의식이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합니다. 어제도 2000명의 유치원 아이들, 오늘도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만났고 부부 안락사도 개척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불법과 인간생활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태허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불광산을 창립한 것으로 압니다. 태허대사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태허대사는 사심없이 중생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새로운 생활불교를 제창하신 분이시죠. 태허(太虛)대사는 설법으로 연을 맺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문자로 반야의 뜻을 해석하기도 하고, 경을 강의



◁불광산사아래전3층에 위치한선정(禪靜)법당. 사부대중이 함께 좌선하는 선방이다.

3월 28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떠나 2시간여를 비행한 후 대만 중정공항에 도착,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도착한 불광산사는 대만 남쪽 태평양을 낀 까오슝(高雄)현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침 해 저를 즈음 바라보게 된 불광산사는 황금빛 노을과 어울린 거대한 아미타불이 기자를 반기는 듯 했다.

'불광보조삼천계 법수장류오대주(佛光普照三千界 法水長流五大洲)'

삼천대천 세계에 불광(佛光)이 두루 비치고, 오대주(五大洲)에 법수(法水)가 흐르게 하자는 불광산의 창립이념이 새겨진 일주문(頭山門)과 불이문을 지나 대웅보전이 들어선 엄청난 넓이의 도랑에 들어서자 수천명의 신심 및 기혼 부부가 '부처님 손가락(佛指) 사리' 앞에서 불광산사 성운(聖雲)대사의 증명 아래 부부의 도를 지킬 것을 서약하는 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높이 120척의 아미타불과 7만여기를 수용한 남골묘역인 만수원, 불광진료소, 불광연문물전람관 및 국제문물전람관, 8천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공양간이 있는 운거루, 극락세계를 살아있는 듯이 그대로 재현한 정토동굴, 북방불교의 부처님들을 모신 금불루와 남방불교의 부처님들을 모신 옥불루 등등. 불광산사의 엄청난 불사들은 전통 총림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철저하게 포교에 적합하도록 배려되어 있었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성운스님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수천명이 동시에 속박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현대식 숙박시설인 신도회관에서 하룻밤은 산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쾌적한 일류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예불을 올리고 아침공양을 한후 아래전 1층 객실에서 성운스님을 기다렸다. 조계사 상임법사 연담스님을 비롯한 5명의 스님 등 일행을 반갑게 맞은 성운스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며, 좌담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국 스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스님들이 읽고 있는 가사도 제가 젊을 때 언던 가사와 같아 더

욱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통도사와 불교TV, 현대불교신문과 지매결연을 맺었고 앞으로 한국불교와는 한가죽처럼 지냈으면 합니다. 한국 불교TV에서는 4월부터 6개월간 나의 법문을 녹화방송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테이프들은 30년전부터 녹화해 온 것인데, 비디오 테이프가 이전 1만여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보고 싶진 않군요(웃음)."

▲불광산사에는 800여명의 비구니 스님과 200여명의 비구스님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하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전불교는 비구니를 낮추어보는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② 제11 권보탑품

보배탑이 솟아남

이 '권보탑품(見寶塔品)'에 이르러 석가모니불과 이 법화에 동참한 대중들 앞에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큰 탑이 출현해 땅에서 솟아나 영축신의 하늘 가운데 높이 떠올랐다. 이 보배탑은 높이가 5백 요자나(由旬), 가로 세로 길이가 2백 5십 요자나에 달했을 뿐 아니라 갖가지 보배구슬로 장식되고 5천이나 되는 난순과 1천만의 감실이 붙어 있었다. 또 7보로 된 깃발과 해가리개, 보석으로 된 목걸이, 보배방울 등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장식되고, 4면에서는 티끌과 악과 찬다나 나무로 만든 향(摩羅跋 檀香)의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천룡 8부중이 보배탑에 온갖 꽃과 향, 영락, 깃발과 해가리개, 음악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드리자, 보배탑 안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훌륭히 부처님의 지혜 즉 평

에서 내시어 '모두 진실하다'고 말하며 '훌륭하고 훌륭하여라'라고 찬탄하는 것이다."

석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오설 보살은 다시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은 이 부처님의 몸을 보고자 합니다"라고 부처님께 여주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이 다보여래는 또 깊고 깊은 하나의 서원을 세웠다. 그것은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 내 보배탑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만일 내 몸을 보고자 하면, 그때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시방(十方)에 계시는 분신(分身)의 모든 부처님이 그 장소에 모이도록 한 후에 비로소 내 몸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서원이다. 그러므로 나도 시방에 있는 나의 본인의 부처님을 이제부터 이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

이상이 지금까지의 개요를 기술한

다보여래님의 全身 사리탑

"법화경 설할 때 탑과 함께 참석 正法 증명"

등이라는 큰 지혜(平等大慧)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敬善薩法)이며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佛所護念)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 설하시니, 이와 같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합니다"라는 찬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자리에 모인 대중은 이 보배탑은 무엇 때문에 이 곳에 출현하였으며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어떤 부처님일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이에 석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 보배탑은 아득한 옛날에 일멸하신 다보여래(多寶如來)는 부처님의 사리탑이며, 지금도 이 탑 안에는 그 부처님의 전신(全身) 사리가 계신다. 이 부처님은 옛날 보살로서 수행할 때에 큰 서원을 세웠다. 자기가 일멸한 후에 언제 어떠한 장소이든 만일 <법화경>을 설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는 이 보배탑과 함께 그 장소에 가서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찬탄하겠노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이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 이 큰 보배탑이 출현하여 다보여래께서 큰 음성을 탑 안

것이다. 이 11장은 앞장의 '법사품'에 이어서 <법화경>의 호지(護持)와 유포를 테마로 하는 유포분에 해당되지만 일련된 탑의 출현과 다보여래라는 과거에 멀도한 부처님의 등장 및 처음 밝히진 본인의 여러 부처님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보불은 아득한 옛날에 일멸하신 부처님이시다. 그 다보불은 보살수행 때에 세운 서원에 의해서 지금 이 석가모니불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 설법을 찬탄하고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임을 증명한다. 이 다보불의 찬탄과 진실의 증명은 석존의 설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걸쳐 <법화경>이 설해질 때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출현하신다고 한다. 이것은 이 <법화경>이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걸쳐 언제나 진실한 바른 가르침(正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보편적인 진실, 이것이 <법화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이다.

부무설장사 조실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병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야 두세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복소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없애 주어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기 등 어혈도 풀어주어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도록)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여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위계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두통), (미비), (저림), (심한 현기증), 법에 의한(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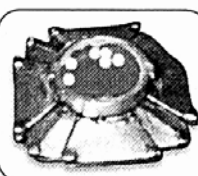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구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요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칸박액, 매실, 머위 등)

- 현대대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행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대응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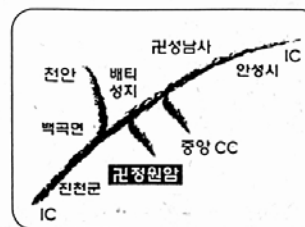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정원암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정원암
- 조흥은행 914-04-286470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권 대한불교 정 원 암

조 계 중